

일부 중국 유학생에서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섭취 빈도와와의 관련성

†허은실·박혜진
창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Inter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and, Recognitions, Preferences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by Chinese Students in Korea

†Eun-Sil Her and Hye-Jin Park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630-764,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r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recognition,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by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acculturative stress score was 3.06 ± 0.32 , 'homesickness' score was the highest (3.92 ± 0.62) and 'guilt score' score was the lowest (2.28 ± 1.04). The rate of preferred for Korean food was low (20.5%). The places for eating Korean food were 'restaurant' (49.6%) and 'school cafeteria' (41.1%). The cooking experience regarding Korean food was 45.0% and they had cooked 'Bulgogi' (26.7%) and 'Bibimbap' (21.9%). The recognition score for Korean traditional food was 0.70 ± 0.27 . The preference score for Korean traditional food was 3.14 ± 0.54 , and the favorite foods were 'Galbi' and 'Galbitang' while 'Ggakdugi' was the lowest. The eating frequency for Korean traditional food was 2.15 ± 0.82 , and 'Baechukimchi' and 'Bibimbap' were comparatively high. The acculturative stress showed no correlation with the recognition,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The recogni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eating frequency ($r=0.175$, $p<0.05$). The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ating frequency ($r=0.274$, $p<0.001$), and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in 'Ddeokbokki' ($r=0.470$). The explanation power (R^2) of recognition and preference on eating frequency was 0.098. This study showed the interrelations among recognition,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except for acculturative stress.

Key words: acculturative stress, recognition, preference, eating frequency, Korean traditional food

서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를 시작하여 급속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적 교류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Lim CH 2009), 201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68,039명이고,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50,558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적응은 환경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이나 집단 내에

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특히 유학으로 인하여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이동과 같은 문화 환경상의 변화 속에서는 문화적응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문화, 입에 맞지 않은 음식, 언어 구사 및 소통의 문제, 사회적 고립감, 현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들을 동반하게 된다(Hwang NR 2011).

한 나라의 음식문화는 지리적 여건이나 풍토 등의 자연환경과 문화, 종교와 같은 사회요인이 융합된 문화유산이며, 음식문화의 공유는 민족 간의 이해와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Lee YJ 2007). 최근 한국전통음식이 외국인들에게 소개되

† Corresponding author: Eun-Sil Her,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630-764, Korea. Tel: +82-55-250-1203, Fax: +82-55-250-1200, E-mail: heres@csc.ac.kr

어 맛과 영양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건강식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Ha KH 2010), 정부도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통하여 농림수산물산업, 외식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Song & Moon 2011).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전통문화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에게 한식(53.2%)이 가장 흥미로운 전통문화이었고, 경제적 상품성(63.1%)도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인지되어 있는 그 나라의 전통음식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된 친숙한 음식을 먹는다. 따라서 한국전통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거나 친숙성이 높아지면 굳이 그 음식을 먹거나 보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어 선호도와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Seo YJ 2005). 특히 방한 외국인 중에서는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국 음식문화에 대해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겠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Her 등(2008)에서 음료 선호도와 섭취도가 관련이 있고, 음료 섭취가 사회성과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어 학습(Lim KY 2008), 대학생활적응도(Chen J 2010), 정신건강과 음주, 흡연(Song HH 2011), 우울(Bai M 2010), 적응(Bai M 2010)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식의 인식도와 기호도와 섭취 빈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과 부산지역 중국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인지도, 선호도 및 섭취 빈도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 한국전통음식의 세계화 방안 및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체에 대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남 소재 C대학과 부산 소재 P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60명에게 중국어로 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것과 기록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4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1) 일반사항

일반사항으로는 학생들의 성별, 체류 기간, 한 달 용돈, 거주 형태, 연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한국생활의 즐거움과 만족도

Gang SA(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로 한국생활의 즐거움과 만족도, 앞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의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는 Lim KY(2008)에서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지각된 차별감 11문항, 향수병 2문항, 지각된 적대감 5문항, 의사소통 문제 4문항, 문화적 충격 및 소외감 9문항, 죄책감 1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신뢰성 척도인 Cronbach α 값이 0.73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4) 한국음식에 대한 섭취 실태

한국음식의 섭취 실태는 Seo KH(2003)와 Kweon & Yoon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음식 선호도, 주로 먹는 장소, 섭취 빈도, 한국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 여부, 한국음식을 배울 의향, 만들어본 한국음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Seo YJ 2005; Yoon JH 2007; Ha KH 2010)들을 참고하여 총 15항목을 가지고 측정하였고, 각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는 0점을, 그렇다는 1점을 주어 인지도를 구하였다.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0.781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를 나타내었다.

6) 대표적인 한국전통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Seo YJ(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추출한 19종류의 한국전통음식을 가지고 5점 척도법(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보통이다, 4: 좋아한다, 5: 매우 좋아한다)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였고, 5점 빈도법(1: 거의 먹지 않는다, 2: 1회 정도/1개월, 3: 1회 정도/2주일, 4: 1회 정도/1주일, 5: 2회 이상/1주일)으로 섭취 빈도를 구하였다.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0.909, 섭취 빈도는 0.925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보였다.

3. 결과 처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명목형

자료들은 독립변수인 성별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χ^2 -test로 관련성 검증을 하였다. 등간 또는 비율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평균의 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하였으며, 변수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stepwise 방식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Items	N(%)
Gender	Male	127(51.0) ¹⁾
	Female	122(49.0)
Period of stay in Korea	<6 months	64(25.7)
	6 months~1 year	104(41.8)
	≥1 year	81(32.5)
Monthly allowance (won)	<100,000	10(4.1)
	100,000~200,000	79(31.7)
	200,000~300,000	76(30.5)
	≥300,000	84(33.7)
Residence type	Dormitory	212(85.1)
	Lodging house	34(13.7)
	Others	3(1.2)
	Age (year)	21.5±1.5 ²⁾
	Total	249(100.0)

¹⁾ N(%): Number of students. ²⁾ Mean±S.D.

Table 2. Enjoyment and satisfaction of life in Korea

Variables	Items	Gender		Total	χ^2 -value
		Male	Female		
Enjoyment of life in Korea	Not enjoy	14(11.0) ¹⁾	4(3.3)	18(7.2)	6.189*
	So so	75(59.1)	84(68.9)	159(63.9)	
	Enjoy	38(29.9)	34(27.9)	72(28.9)	
	Total	127(51.0)	122(49.0)	249(100.0)	
Satisfaction of life in Korea	Not satisfy	13(10.2)	4(3.3)	17(6.8)	7.017*
	So so	80(63.0)	93(76.2)	173(69.5)	
	Satisfy	34(26.8)	25(20.5)	59(23.7)	
	Total	127(51.0)	122(49.0)	249(100.0)	
Intention to live in Korea	No	38(29.9)	49(40.2)	87(34.9)	9.714**
	So so	48(37.8)	54(44.3)	102(41.0)	
	Yes	41(32.3)	19(15.5)	60(24.1)	
	Total	127(51.0)	122(49.0)	249(100.0)	

¹⁾ N(%): Number of students. *: $p<0.05$, **: $p<0.01$.

학생’(51.0%)이 여학생(49.0%)보다 조금 더 많았다. 체류 기간은 ‘6개월~1년’이 41.8%로 가장 높았고, 한 달 용돈은 ‘10만원 미만’이 4.1%이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10~20만 원’(31.7%), ‘20~30만 원’(30.5%), ‘30만 원 이상’(33.7%)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거주 형태는 85.1%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평균연령은 21.5±1.5세이었다.

2. 한국생활의 즐거움과 만족도

한국생활의 즐거움에 대하여(Table 2) ‘보통이다’가 63.9%로 높은 비율을 보였던 반면 ‘즐겁지 않다’는 7.2%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즐겁다’(29.9%)와 ‘즐겁지 않다’(11.0%)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보통이다’의 비율(68.9%)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과 한국생활의 즐거움 간에 관련성을 보였다($p<0.05$).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즐거움보다는 비율면에서는 조금 낮았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보통이다’가 69.5%, ‘만족한다’는 23.7%를 보였다. 한편, Gang SA(2007)의 연구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40.0%로 나타나, 본 연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만족한다’(26.8%)와 ‘만족스럽지 않다’(10.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학생들은 ‘보통이다’(76.2%)의 비율이 높아서 성별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다($p<0.05$).

Gang SA(2007)의 연구에서는 49.1%의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24.1%만이 살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2.3%)이 여학생(15.5%)보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한국에 살고 싶은 의향 간에 관련성이 있었다($p<0.01$).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한국생활의 즐거

움과 만족도를 더 느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3.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 적응과정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평균은 3.06±0.3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는 ‘향수병’이 3.92±0.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친척, 친구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은 2.28±1.04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평균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Hwang NR(2011)의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평균 2.44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고,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영역이 향수병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영역이 죄책감으로 본 연구와 같

았으나, 점수가 각각 2.71점과 1.81점으로 더 낮았다. 이런 차이는 Hwang NR(2011)의 연구대상보다 본 연구대상의 한국 체류 기간이 더 짧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Bai M(2010)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양의 상관관계($r=0.358, p<0.01$)를 보여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음식에 대한 섭취 실태

한국음식 선호도를 보면(Table 4) ‘좋아한다’는 20.5%로 낮게 나타났고, ‘좋아하지 않는다’도 19.7%를 차지하였다. 성별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한국음식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음식 섭취 빈도를 보면 ‘하루에 1회 이상’ 먹는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거의 먹지 않는 비율도 13.7%이었으며, 성별과는 관련

Table 3. Acculturative stress on Korea

Variables	Items	Gender		Total (N=249)	t-value
		Male (N=127)	Female (N=122)		
Perceived discrimination	11	3.08±0.29 ¹⁾	3.13±0.31	3.11±0.30	-1.207
Homesickness	2	3.91±0.85	3.94±0.78	3.92±0.62	0.499
Perceived hatred	5	3.04±0.42	2.99±0.36	3.02±0.40	0.096
Communication problems	4	3.33±0.66	3.20±0.60	3.26±0.63	0.441
Cultural shock & alienation	9	2.78±0.39	2.73±0.30	2.76±0.35	0.046
Guilt	1	2.37±1.13	2.18±0.94	2.28±1.04	1.355
Total mean	32	3.08±0.33	3.04±0.30	3.06±0.32	0.805

¹⁾ Mean±S.D.

Table 4. Intake status on Korean food

Variables	Items	Gender		Total	χ^2 -value
		Male	Female		
Preference on Korean food	Do not like	29(22.8) ¹⁾	20(16.4)	49(19.7)	4.256
	Soso	78(61.4)	71(58.2)	149(59.8)	
	Like	20(15.7)	31(25.4)	51(20.5)	
	Total	127(51.0)	122(49.0)	249(100.0)	
Eating frequency of Korean food	Do not eat	18(14.3)	16(13.1)	34(13.7)	2.032
	1 time a week	31(24.6)	31(25.4)	62(25.0)	
	3~4 times a week	32(25.4)	23(18.9)	55(22.2)	
	≥1 time a day	45(35.7)	52(42.6)	97(39.1)	
Total	126(50.8)	122(49.2)	248(100.0)		
Places for eating Korean food	School cafeteria	50(39.4)	51(42.9)	101(41.1)	0.437
	Restaurants	64(50.4)	58(48.7)	122(49.6)	
	Others	13(10.2)	10(8.4)	23(9.3)	
	Total	127(51.6)	119(48.4)	246(100.0)	

¹⁾ N(%): Number of students.

성이 없었다. Kweon & Yoon(2006)의 서울 거주 중국인들의 연구에서는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비율이 65.6%로 높았고,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1번'이 46.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연령, 직업 여부와 거주 형태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음식을 주로 먹는 장소로는 '음식점'이 49.6%로 나타났다, 학교 식당도 41.1%로 높았다. 이는 거주 형태가 대부분 기숙사였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Kweon & Yoon(2006)의 연구에서도 '식당'(63.2%), '가정집'(18.0%) 순으로 나타나, 직접 만들어 먹는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한국음식의 조리 경험

한국음식의 조리 경험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의 48.7%가 한국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Seo KH(2003)의 일본·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인 34.5%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56.1%)이 남학생(41.4%)보다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관련성을 보였다($p < 0.01$).

만들어 본 한국음식으로는 '불고기'(26.7%)와 '비빔밥'(21.9%)이 높았던 반면, '김치'(6.7%), '떡'(4.8%)에 대한 조리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Seo KH(2003)의 연구에서는 가장 배우고 싶은 한국음식으로 29.6%가 '김치'라고 하였고, '불고기'(18.9%)가 그 다음을 차지하여 본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음식을 배울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있다'는 26.1%로 저조하였던 반면, Seo KH(2003)의 연구에서는 62.1%로 높아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Kweon & Yoon(2006)의 연구에서 한국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취미(33.2%)와 마스크(22.0%)를 꼽았는데, 한국음식을 알리는데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a KH(2010)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한국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각도를 통한 조리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6.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Table 6에 있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결과를 보면 인지도의 평균은 0.70 ± 0.27 이었으며, 성별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다. 항목들에서 높은 인지율을 보인 것은 '건강에 좋음'(67.9%)과 '조리법이 간단'(63.3%), '안전함'(59.0%) 순이었고, '가격이 저렴'은 19.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결과에서도 한국음식의 장점으로 재료나 고유의 요리법에서 나오는 건강함이 5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Ha KH(2010)의 대전지역 중국 유학생 연구에서는 '한국음식은 값이 싸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국에 이주한 사람들에서 그 나라 스타일로 식사 형태가 변함에 따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Ghalap 등 2011; Tseng & Fang 2011).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통음식에 건강에 좋다는 것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성별과의 유의적

Table 5. Experience cooking Korean food

Variables	Items	Gender		Total	χ^2 -value
		Male	Female		
Cooking experience about Korean food	Yes	48(41.4) ¹⁾	64(56.1)	112(48.7)	5.014*
	No	68(58.6)	50(43.9)	118(51.3)	
	Total	116(50.4)	114(49.6)	230(100.0)	
Cooking for Korean food	Kimchi	4(8.9)	3(5.0)	7(6.7)	2.420
	Bulgogi	13(28.9)	15(25.0)	28(26.7)	
	Japchae	4(8.9)	6(10.0)	10(9.5)	
	Ddeokbokki	3(6.7)	7(11.7)	10(9.5)	
	Bibimbap	10(22.2)	13(21.7)	23(21.9)	
	Ddeok	3(6.7)	2(3.3)	5(4.8)	
	Others	8(17.8)	14(23.3)	22(21.0)	
Total	45(42.9)	60(57.1)	105(100.0)		
Intention to learn Korean food	Yes	28(22.4)	36(30.0)	64(26.1)	3.670
	So so	60(48.0)	60(50.0)	120(49.0)	
	No	37(29.6)	24(20.0)	61(24.9)	
Total	125(51.0)	120(49.0)	245(100.0)		

¹⁾ N(%): Number of students. *: $p < 0.05$.

Table 6. The recognition for Korean traditional food

Items	Gender		Total (N=249)	χ^2 -value
	Male (N=127)	Female (N=122)		
Korean traditional food is nutritionally superior.	32(40.0) ¹⁾	39(58.2)	71(48.3)	4.842*
I like Korean traditional food.	35(32.4)	47(46.1)	82(39.0)	4.119*
I know a lot of Korean traditional food recipes.	19(28.4)	21(38.2)	40(32.8)	1.323
I am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al food.	43(40.2)	53(50.5)	96(45.3)	2.264
Korean traditional food in delicious.	39(38.6)	42(45.2)	81(41.8)	0.853
Korean traditional smell good.	60(60.6)	53(60.2)	74(39.6)	0.003
Korean traditional food is smooth tasting.	29(30.2)	22(25.6)	51(28.0)	0.481
I have made a Korean traditional food.	23(21.5)	33(32.4)	56(26.8)	3.138
Korean traditional food recipes is simple.	55(67.1)	45(59.2)	100(63.3)	1.050
Korean traditional food is good for my health.	44(63.8)	47(72.3)	91(67.9)	2.506
Korean traditional food is colorful and beautiful.	34(38.6)	46(55.4)	80(46.8)	4.834*
Korean traditional food is fresh.	44(50.0)	43(50.6)	87(50.3)	0.006
Korean traditional food have beautiful shape.	47(50.0)	54(62.1)	101(55.8)	2.668
Korean traditional food is safe.	39(56.5)	40(61.5)	79(59.0)	0.348
Korean traditional food is rather cheap.	19(18.8)	16(19.3)	35(19.0)	0.006
Total	0.72±0.26 ²⁾	0.68±0.27	0.70±0.27	1.100

¹⁾ N(%): Number of students. ²⁾ Mean±S.D. *: $p < 0.05$.

인 관련성을 나타낸 항목은 모두 세 가지였는데, ‘영양적으로 우수’가 남학생은 40.0%인데 비해 여학생은 58.2%이었고 ($p < 0.05$), ‘한국전통음식을 좋아함’에서도 남학생은 32.4%인 반면 여학생은 46.1%로 더 높았다($p < 0.05$). 또한 ‘색이 아름다움’ 항목에서는 남학생은 38.6%이었으나 여학생은 55.4% ($p < 0.05$)로 나타나 모두 여학생의 인지율이 더 높았다.

7. 대표적인 한국전통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19종류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Kim 등(2004)은 외국인들이 한국음식의 건강 기능성에 대한 인지는 높으나 실제 섭취경험이나 요리경험이 없어서 음식 종류별 인지도는 낮으며, 이는 체류 기간이 증가하면서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 바 있다.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본 연구대상의 한국전통음식 선호도 총점 평균은 3.14점/5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성별 간에 평균의 차이는 없었다. 음식 종류별로 선호도를 보면 ‘갈비’(3.68점), ‘갈비탕’(3.56점), ‘육개장’(3.45점), ‘삼계탕’(3.40점)의 점수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 ‘짜두기’(2.78점/5점)가 가장 낮았다. Song & Moon(2011)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한국음식 구매 시 선호하는 종류로는 ‘불고기’, ‘갈비구이’, ‘갈비탕’, ‘갈비찜’, ‘삼겹살’, ‘찜닭’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서는 외국인들이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나빴던 음식으로 김치가 12.2%

로 가장 높았고(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본 연구에서도 배추김치와 짜두기, 김치찌개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Kweon & Yoon(2006)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매운 맛(57.1%)을 꼽은 바 있다. 따라서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김치의 선호도와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운 맛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성별로 보면 ‘설렁탕’($p < 0.01$)에서는 남학생이, ‘비빔밥’($p < 0.01$), ‘된장찌개’($p < 0.05$), ‘김치찌개’($p < 0.01$), ‘냉면’($p < 0.001$), ‘김치전’($p < 0.05$), ‘짜두기’($p < 0.01$), ‘인절미’($p < 0.05$), ‘떡볶이’($p < 0.05$)의 8종류에서는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He WT(2010)의 중국 유학생의 한국음식 선호도 결과를 보면 본 연구와 음식 종류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김치볶음밥’, ‘삼겹살’,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짜두기’, ‘떡볶이’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전통음식의 섭취 빈도 총점 평균은 2.15점/5점으로 선호도보다 낮았고, 이런 경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료선호도와 섭취도를 연구한 Her 등(2008)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음식 종류별로 보면 이들이 한국음식을 주로 먹는 장소인 학교식당과 음식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인 ‘배추김치’(2.85점), ‘비빔밥’(2.66점)의 점수가 다른 음식에 비해 비교적 높았는데, ‘배추김치’의 경우 선호도 점수는 그다지 높지 못했지만 한식 메뉴에 기본으로 포함되는 음식이어서

Table 7.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for Korean traditional food

Items	Preferences		Total (N=249)	t-value	Eating frequency		Total (N=249)	t-value
	Male (N=127)	Female (N=122)			Male (N=127)	Female (N=122)		
Bibimbap	3.11±0.86 ¹⁾	3.46±0.87	3.28±0.88	-3.104**	2.84±1.35	2.49±1.14	2.66±1.25	1.929
Samgyetang	3.38±0.89	3.42±0.84	3.40±0.86	-0.402	2.09±1.21	1.68±1.04	1.88±1.14	2.470*
Galbitang	3.63±0.86	3.49±0.87	3.56±0.87	1.285	2.42±1.25	1.89±1.15	2.14±1.22	2.932**
Yukgaejang	3.51±0.85	3.38±0.91	3.45±0.88	1.121	2.05±1.13	1.69±1.04	1.86±1.01	2.173*
Seolleongtang	3.29±0.94	2.93±0.92	3.12±0.94	2.810**	1.95±1.06	1.71±1.10	1.83±1.08	1.472
Doenjang jjigae	2.90±0.99	3.20±0.96	3.05±0.98	-2.389*	2.16±1.20	2.74±1.35	2.46±1.31	-3.027**
Kimchi jjigae	2.73±1.00	3.15±0.93	2.93±0.99	-3.332**	2.17±1.26	2.56±1.37	2.37±1.33	-1.858
Naengmyeon	2.78±0.97	3.26±0.98	3.02±1.00	-3.669***	1.95±1.10	2.33±1.20	2.15±1.16	-2.186*
Kalguksu	2.96±0.84	3.15±0.65	3.05±0.76	-1.901	2.03±1.11	1.92±1.21	1.98±1.16	0.651
KimchiJeon	2.91±0.94	3.21±0.84	3.06±0.90	-2.476*	1.90±1.11	2.13±1.23	2.02±1.18	1.266
Pajeon	3.08±0.89	3.28±0.82	3.18±0.86	-1.723	2.01±1.14	2.05±1.25	2.03±1.19	-0.230
Baechukimchi	2.87±1.04	3.11±0.89	2.99±0.97	-1.854	2.61±1.53	3.06±1.54	2.85±1.55	-1.958
Ggakdugi	2.57±0.95	3.00±0.91	2.78±0.95	-3.488**	2.14±1.28	2.63±1.54	2.40±1.44	-2.318*
Galbi	3.77±0.86	3.58±0.82	3.68±0.84	1.770	2.46±1.17	2.33±1.27	2.39±1.22	0.673
Injeolmi	2.89±0.98	3.15±0.88	3.02±0.94	-2.136*	2.09±1.19	2.39±1.38	2.25±1.30	-1.530
Songpyeon	2.98±0.85	3.07±0.83	3.03±0.84	-0.812	1.88±1.03	1.66±1.07	1.76±1.06	1.397
Sikhye	2.95±0.77	2.93±0.80	2.94±0.78	0.191	1.86±0.99	1.54±0.97	1.69±0.99	2.158*
Sujeonggwa	2.87±0.88	2.85±0.77	2.86±0.82	0.222	1.80±1.02	1.56±1.00	1.67±1.01	1.592
Ddeokbokki	2.90±1.02	3.22±0.95	3.03±1.00	-2.506*	2.08±1.13	2.47±1.35	2.29±1.26	-2.104*
Total	3.08±0.59	3.21±0.47	3.14±0.54	-1.920	2.17±0.84	2.13±0.82	2.15±0.82	0.389

¹⁾ Mean±S.D. *: $p<0.05$, **: $p<0.01$.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고, ‘비빔밥’은 조리 경험이 높았던 것이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반면, 접하기 다소 힘든 ‘수정과’(1.67점), ‘식혜’(1.69점)와 같은 음료의 점수는 낮았다. 성별로 보면 ‘삼계탕’($p<0.05$), ‘갈비탕’($p<0.01$), ‘육개장’($p<0.01$), ‘식혜’($p<0.05$)의 네 종류에서 남학생 점수가 더 높았던 반면 ‘된장찌개’($p<0.01$), ‘냉면’($p<0.05$), ‘깍두기’($p<0.05$), ‘떡볶이’($p<0.05$)는 여학생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8. 대표적인 한국전통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의 관련성

한국전통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의 상관관계(Table 8)는 상관계수(r)가 0.274($p<0.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학생($r=0.267$)보다 여학생($r=0.289$)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식 종류별로 보면 모든 음식에서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떡볶이’($r=0.470$)에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배추김치’($r=0.466$), ‘김치찌개’($r=0.451$) 순이었다. 반면, ‘송편’($r=0.216$)은 가장 낮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냉

면’의 상관계수가 0.506($p<0.0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삼계탕’, ‘설렁탕’, ‘깍두기’, ‘송편’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에서는 ‘인절미’($r=0.500$, $p<0.001$)에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반면, ‘식혜’($r=0.250$, $p<0.05$)에서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9.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 섭취 빈도 간의 관련성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 섭취 빈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Lim KY(2008)의 외국인 대상 연구에서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한국어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그 설명력이 28.4%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Chen J(2010)의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외로움보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48%이었다. 식생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Zhu JF(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후 과일과 채소 섭취가 줄고, 패스트푸드

Table 8.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Items	Gender		Total
	Male	Female	
Bibimbap	0.420***	0.398***	0.369***
Samgyetang	0.120	0.364***	0.236**
Galbitang	0.299**	0.289**	0.297***
Yukgaejang	0.238*	0.251*	0.252**
Seolleongtang	0.158	0.263*	0.233**
Doenjang jjigae	0.357**	0.364***	0.387***
Kimchi jjigae	0.412***	0.464***	0.451***
Naengmyeon	0.506***	0.327**	0.430***
Kalguksu	0.246*	0.255*	0.237**
KimchiJeon	0.457***	0.364***	0.412***
Pajeon	0.342**	0.356**	0.349***
Baechukimchi	0.481***	0.436***	0.466***
Ggakdugi	0.177	0.448***	0.351***
Galbi	0.226*	0.279**	0.262**
Injeolmi	0.306**	0.500***	0.417***
Songpyeon	0.112	0.324**	0.216**
Sikhye	0.232*	0.250*	0.243**
Sujeonggwa	0.229*	0.263*	0.248**
Ddeokbokki	0.447***	0.467***	0.470***
Total	0.267**	0.289**	0.274***

*: $p < 0.05$, **: $p < 0.01$, ***: $p < 0.001$.

드 섭취가 증가하였으며, 아침 결식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이 많이 변하였고, 본 연구와 측정도구가 달랐으나 여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식생활 변화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아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Oh KS(2010)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식생활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고, Kim & Wolpin(2008)의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가족연구에서도 부모보다는 청소년 자녀들이 미국 문화와 영어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결과에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이 20대의 젊은 대학생들이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크고, 한국전통음식의 조리 경험, 인지도,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던 것 등에 의한 결과라 생각되고,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한국전통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 사이에만 양의 상관성($r=0.267$, $p < 0.01$)을 보였고, 여학생에서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와 섭취 빈도 간에는 $r=0.216$ ($p < 0.05$), 선호도와 섭취 빈도 간에는 $r=0.289$ ($p < 0.01$)의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10.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음식의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Table 10), R^2 가 0.098($F=10.366$, $p < 0.001$)이었고, 인지도($p < 0.001$)와 선호도($p < 0.05$) 모두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R^2 가 0.080($F=7.832$, $p < 0.01$)로 낮은 설명력을 갖고 있었고, '선호도'($p < 0.01$)만이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여학생에서는 R^2 가 0.076($F=8.620$, $p < 0.01$)으로 남학생보다 더 낮은 설명력을 보였고,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선호도'($p < 0.01$)만이 섭취 빈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Her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음료 선호도가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2 가 0.153으로 15.3%의 설명력을 가져서 본 연구보다 높았다.

Table 9.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acculturative stress, recognition,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Gender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Recognition on	
			Korean traditional food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food
Male	Recognition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39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food	-0.127	-0.005	
	Eating frequency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28	0.126	0.267**
Female	Recognition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42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46	0.082	
	Eating frequency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28	0.216*	0.289**
Total	Recognition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03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96	0.025	
	Eating frequency on Korean traditional food	-0.001	0.175*	0.274***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and preference on eating frequency for Korean traditional food

Dependent variable	Gender	Independent variable	B	SE ¹⁾	β	t	R ²	F value
Eating frequency of Korean traditional food	Male	Constant	0.649	0.556		1.168	0.080	7.832**
		Preference	0.492	0.176	0.302	2.799**		
	Female	Constant	0.418	0.578		0.724	0.076	8.620**
		Preference	0.524	0.179	0.294	2.936**		
	Total	Constant	0.309	0.413			0.098	10.366***
		Recognition	0.478	0.123	0.281	3.874***		
		Preference	0.471	0.223	0.153	2.109*		

¹⁾ SE: Standard error. **: $p < 0.01$, ***: $p < 0.00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및 섭취 빈도와 의 관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생활이 즐겁다는 비율은 28.9%이었고, 만족한다는 비율은 23.7%이었다. 그리고 전체의 24.1%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은 3.06 ± 0.32 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에서는 ‘향수병’이 3.92 ± 0.62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죄책감은 2.28 ± 1.04 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음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20.5%로 낮게 나타났고, 한국음식 섭취 빈도는 ‘하루에 1번 이상’ 먹는다는 비율이 39.1%를 보였다. 한국음식을 주로 먹는 장소로는 ‘음식점’(49.6%)과 ‘학교식당’(41.1%)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7%이었고, 한국음식을 배울 의향이 있는 학생은 26.1%이었다. 만들어 본 한국음식으로는 ‘불고기’(26.7%)와 ‘비빔밥’(21.9%)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 평균은 0.70 ± 0.27 이었고,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인 항목으로는 ‘건강에 좋음’(67.9%)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가격이 저렴’(19.0%)이었다. 한국전통음식 선호도 총점 평균은 3.14점/5점이었고, ‘갈비’(3.68점/5점), ‘갈비탕’(3.56점/5점)의 점수가 비교적 높았던 반면, ‘짜두기’(2.78점/5점)가 가장 낮았다. 한국전통음식의 섭취 빈도 총점 평균은 2.15점/5점이었고, ‘배추김치’(2.85점), ‘비빔밥’(2.66점)의 점수는 비교적 높았던 반면, ‘수정과’(1.67점), ‘식혜’(1.69점)의 점수는 낮았다. 한국전통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빈도의 상관관계(r)는 $0.274(p < 0.001)$ 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식 종류별로 보면 ‘떡볶이’($r = 0.470$)에서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송편’($r = 0.216$)은 가장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와 섭취 빈도 간에는 상관관계

수가 $0.175(p < 0.05)$ 이었다.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 섭취 빈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와 선호도가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력(R^2)은 $0.098(F = 10.366, p < 0.001)$ 이었다.

본 연구는 소수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 선호도와 섭취 빈도와 관련이 없었던 반면, 한국전통음식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위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ference

- Bai M. 2010. Related factor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MS thesis, Yeungnam Uni. Gyeongsan. Korea
- Chen J. 2010. The influence of loneliness and acculturation stress on Chinese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S thesis, Daegu Hanny Uni. Daegu. Korea
- Gang SA. 2007. The opinio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regarding the images of Korea. MS thesis, Dong-A Uni. Busan. Korea
- Ghalap N, Davies M, Patel K, Sattar N, Khunti K. 2011. Type 2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South Asians. *Prim Care Diabetes* 5:45-56
- Ha KH. 2010. Survey of Korean food acknowledgement and preference by Chinese students in Daejeon. *Korean J Food & Nutr* 23:186-195
- He WT. 2010. A research on Korean food preference and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MS thesis, Paichai Uni. Daejeon.

- Korea
- Her ES, Lee KH, Bae EY, Lyu ES. 2008. Interrelation among beverage, food behavior and personality in adolescents. *Korean J Comm Nutr* 13:189-198
- Hwang NR. 2011. A study on structural model for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active coping strategy. MS thesis, Catholic Uni. Seoul. Korea
- Kim EJ, Wolpin S. 2008. The Korean American family: Adolescents versus parents acculturation to American culture. *J Cult Divers* 15:108-116
- Kim SA, Lee MA, Kim EM, Lee SJ. 2004. The gap analysis of recognition with a meal of college foodservice by operation system. *Korean J Soc Food Sci* 20:619-629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Yearly residence status for foreign students. Available from (<http://www.immigration.go.kr>)[cited 2013 February 1]
- Kweon SY, Yoon SJ. 2006. Recognition and preference to Korean traditional food of Chinese at Seoul residence. *Korean J Food Culture* 21:17-30
- Lee YJ. 2007. A study on the recognition,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s of Japanese tourist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23:156-164
- Lim CH. 2009.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 Human Ecol* 18:93-112
- Lim KY. 2008.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for Korean culture on academic immersion and achievement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MS thesis, Cheongju Uni. Cheongju. Kore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The situ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consumption. Available from (<http://www.mcst.go.kr/main.jsp>)[cited 2013 February 4]
- Oh KS. 2010. Marital conflict in relation with dietary adaptation and acculturation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MS thesis, Chonbuk National Uni. Jeonju. Korea
- Seo KH. 2003. A research on Korean food preference and satisfaction level on Korea restaurant of Japanese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MS thesis, Kyung Hee Uni. Seoul. Korea
- Seo YJ. 2005. A study of satisfaction of Japanese tourists for Korean traditional food to Korea. MS thesis, Gyeongju Uni. Gyeongju. Korea
- Song HH. 2011. The relationship of mental health to smoking, drinking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MS thesis, Catholic Uni. Bucheon. Korea
- Song JS, Moon SJ. 2011. Survey of Chinese university or college students' preference for and satisfaction with Korean food in Daegu and Gyeongbuk. *Korean J Food Culture* 26:113-119
- Tseng M, Fang CY. 2011. Stress is associated with unfavorable patterns of dietary intake among female Chinese immigrants. *Ann Behav Med* 41:324-332
- Yoon JH. 2007. The perception on Korean traditional foods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in Gyeonggi province. MS thesis, Chung-Ang Education Uni. Seoul. Korea
- Zhu JF. 2012. Lifestyle change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MS thesis, Chung-Ang Uni. Seoul. Korea

접 수 : 2013년 2월 13일
 최종수정 : 2013년 5월 8일
 채 택 : 2013년 5월 8일